

 들어가며

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까?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?

 찬 송

- 찬송: 341장(십자가를 내가 지고) / 십자가 그 사랑

 말 씀

1. ‘밭의 비유’ 중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는 무엇입니까? (5절)

5.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

2.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? (5-6절)

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

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

3.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어떻게 풀이하십니까? (16~17절)

16.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

17.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

4. 돌밭의 마음은 어떤 상태를 뜻할까요? (참고: 마 26:56; 요 9:22-23)

5.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면 낙심하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. 나는 어떻게습니까? 이 밭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 보겠습니까?

 기도

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!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답게 만드심을 감사합니다.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.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